

일제 강점기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 담당층 혁신유림을 중심으로

고순희**

<차례>

1. 머리말
2. 만주망명가사의 담당층 : 혁신유림과 문중 여성
 - 2.1. 만주망명가사의 개관
 - 2.2. 혁신유림의 개념과 만주망명
3. 혁신유림의 사상적 기반
 - 3.1. 유학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 3.2. 공동체와 가족 지향 의식
4. <분통가>의 작품세계를 통해본 혁신유림의 사상
5. 맺음말 : 가사문학사적 의의

<국문초록>

만주망명가사는 총 7편이다. 유일한 남성의 작품인 <분통가>는 독립운동가이자 혁신유림인 김대락이 창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6편은 모두 혁신유림 문중의 여성이 창작했다. 따라서 만주망명가사의 담당층 및 산출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혁신유림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만주망명가사의 배경적 연구로서 혁신유림의 개념, 혁신유림의 철학사상, 혁신유림의 작품인 <분통가> 분석, 그리고 가사문학사적 의의 등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2장에서는 작품의 개관과 혁신유림의 개념을 살폈다. 2.1에서는 만주망명가사 7편의 개관을 정리했다. 2.2에서는 혁신유림의 개념을 살펴보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392).

** 부경대학교

만주망명가사의 작가들이 혁신유림과 그 문중 여성임을 규명했다. 3장에서는 혁신유림의 사상적 기반을 살폈다. 3.1에서는 '유학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측면에서, 3.2에서는 '공동체와 가족 지향 의식'의 측면에서 논의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성들까지 투쟁의 현장에 서게 한 그들의 독립운동 의식이 어디에 근거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4장에서는 유일한 혁신유림의 작품인 <분통가>의 작품세계를 분석했다. '유학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작품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양상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했다. 혁신유림과 문중 여성이 만주망명가사를 창작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했다.

핵심어 : 만주망명가사, 혁신유림, 김대락, 이상룡, 황만영, 유홍석, 권준희, 윤희순, 이호성, 김우락, 김우모, 노블리스-오블리제, 분통가

1. 머리말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내에서 전개한 항일투쟁은 변화를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국내를 떠나 국외에서 독립투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초창기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옛터 전인 만주로 망명지를 결정하고 유하현과 통화현 등 서간도로 건너갔다. 문중과 가족을 포함하여 전 조선을 규합해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독립투쟁에 나설 인재를 교육하고 초창기 독립투쟁의 전선을 이끌었다. 이렇게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로 건너간 만주망명자가 창작한 가사문학이 남아 전한다. <憤痛歌> <위모사> <조순별서> <간운수> <원별가라> <신시터령> <눈물 뿌린 이별가> 등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만주망명지에서 독립투쟁의 배경을 가지고 창작되었던 가사문학을 '만주망명지 가사문학' 혹은 '만주망명가사'로 유형화할 수 있다.

만주망명가사 가운데 독립적인 작품론으로 처음 소개된 가사는 <憤痛歌>이다. 유명한 독립운동가 白下 金大洛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주목될 수 있었다.¹⁾ 그러나 여성의 가사 작품에 관해서는 학계가 그리 주목을 하지 못했다. 개화기가사나 규방가사를 다루는 자리에서 만주독립운동과 관련한다는 사실이 간단히 언급되거나, 혹은 규방가사의 문학적 특질이나 작가의 작품론을 다루는 자리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수준에서 다루어졌다.²⁾ 이런 실정에서 이들 작품들이 ‘만주망명가사’로 유형화될 수는 없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작가가 남성 독립운동가를 따라간 여성이었기 때문에 만주망명의 주제로 인식될 수 없었던 여성 인식의 한계도 존재했다. 자연히 만주로 동반 망명하여 독립 투쟁의 현장에서 지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규방가사에서 다루어지는 데 그쳤을 뿐 ‘만주망명가사’로 유형화하여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 가사문학에 ‘만주망명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론을 전개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³⁾ <위모사>, <원별가라>, <눈물 뿌린 이별가>, <간운스> 등에

- 1) 김용직, 「분통가 · 분통가의 의미와 의식」, 『한국학보』 제5권 2호, 일지사, 1979, 204-225쪽. 새 자료로 <분통가>를 실고(204-213쪽), 해제 형식으로 논문(213-225쪽)을 실었다.
- 2) 이동영,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 『가사문학논고』,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23-169쪽.;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28쪽.; 박요순, 「근대문학기의 여류가사」, 『한국시가의 신조명』, 탐구당, 1994, 301-306쪽.; 권영철,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568쪽.; 조동일, 『한국문학동사』 4권, 지식산업사, 1986, 108-109쪽.;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371면, 373-374면, 412-413쪽.;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85-86쪽.;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 문제」, 『한국고전연구』 제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9-68쪽.; 고순희, 「윤희순의 의병가와 가사 - 여성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장간호, 한국고전여성학회, 2000, 241-270쪽.
- 3)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151-176쪽.;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학회, 2009, 29-56쪽.;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학회, 2010, 107-134쪽.;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 제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133-158쪽.

40 古詩歌研究 第27輯

관한 최근의 연구는 작품의 작가를 추적하고, 그 작품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작품들의 구체적 양상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제 개별 작품의 구체적 양상들이 드러났으므로 이들 가사문학 작품들을 유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만주망명가사의 1차적인 담당층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여성 작가들의 만주망명은 애초 문중 어른, 남편, 아들 등 남성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서 남성의 행보에 동참한 수동적인 것이었다. 당시의 여성 현실이 여성 자신의 뜻에 따른 주체적인 행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었던 데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여성들은 여성이었기에 애초 만주망명에 수동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었기에 그들의 시아버지, 남편, 문중 어른 등 남성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따라서 이들 가사의 담당층을 논함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주제 외에 문중이라는 또다른 주체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분통가>의 작가 김대락을 제외하면 만주망명가사의 작가는 李相龍, 黃萬英, 柳弘錫, 權準義 문중의 며느리였음이 드러난다. 그런데 김대락 본인이 혁신유림이었으며, 독립운동가 이상룡 · 황만영 · 유홍석 · 권준희도 모두 혁신유림이었다. 이렇게 혁신유림은 만주망명가사의 산출 배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만주망명가사의 담당층 및 산출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혁신유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만주망명가사를 혁신유림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혁신유림의 개념, 혁신유림의 철학사상, 그리고 혁신유림의 가사 작품인 <분통가> 분석 등이 논의될 것이며, 가사문학사적 의의도 만주망명가사 전체가 아닌 혁신유림에 국한한 논의가 될 것이다. 만주망명가사에 관한 전체 논의에서 혁신유림과 관련한 배경적 연구인 셈이다. 따라서 6편이나 되는 여성 작품들에 대해서는 개관에서만 소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질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만주망명가사의 개관을 정리한 후, 혁신유림의 개념을 살펴보고, 담당층을 혁신유림과 문중 여성으로 확정하고자 한다. 이어 3

장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여성들까지 투쟁의 현장에 서게 한 그들의 독립운동 의식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혁신유림의 사상적 기반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유일한 혁신유림의 작품인 <분통가>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혁신유림의 사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혁신유림과 그 문중 여성의 가사창작이 지니는 가사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2. 만주망명가사의 담당층 : 혁신유림과 문중 여성

2.1. 만주망명가사의 개관

만주망명가사 7편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다. 기존의 개별 작품론과 관련 논문을 참고하여 만주망명가사 7편의 작가, 문중, 여성을 동반한 망명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작가로 <痛歌>는 독립운동가 白下 金大洛(1854-1914)이며,⁴⁾ <위모사>는 李鎭性(1891-1968)으로 김대락 문중의 여성이다.⁵⁾ <조순별서>와 <간운스>는 金宇洛(1854-1933)으로 독립운동가 石洲 李相龍의 부인이며,⁶⁾ <원별가

4) 통화현 황도촌에 도착한 후 유화현 삼원포, 통화현 합니하를 거쳐 다시 유화현 삼원포 藍山에서 1914년 12월 10일 작고했다. 김대락은 <분통가>를 통화현 합니하에 머물던 1912년 9월에 짓기 시작하여 유화현 남산에서 1913년 6월에 완성해 『白下日記』 6월 4일자에 전문을 실었다(강윤경, 『백하 김대락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 『백하 김대락 선생-추모학술강연회』, 안동향교-안동청년유도회, 2008, 27-42쪽).

5) 이항의 후손인 진성이씨로 김대락의 從姪인 金文植(1892-1972)에게 시집을 와 살았다. 김대락 문중의 만주망명에 합류하여 1912년 봄에 안동을 출발해 여름 즈음 통화현에 도착하자마자 <위모사>를 지었다(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앞의 논문, 32-37쪽).

6) 김우락은 독립운동가 石洲 李相龍(1858-1932)의 부인이자 김대락의 여동생이다. 1911년 1월 25일 안동의 임정각을 떠나 만주로 망명하여 1914년 말 경에 <간운스>를 지었다(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스> 연구』, 앞의 논문, 110-116쪽). 기존 연구에 <조순별서>의 정확한 창작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다. <조순별서>에는 아들 이준형이 고향 안동에 다녀온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아들 이준형은 1913년에 독립운동자금 마련하기 위해 소유 가족과 전답을 팔러 안동에 들어 왔다. 조모의 <조순별서>에 답하는 그 손녀의 <답사친가>가 1914년에 지어졌으므로

42 古詩歌研究 第27輯

라>는 울진군 사동촌 평해 황씨 문중, 즉 독립운동가 黃萬英 문중의 여성이다.⁷⁾ <신식터럼>은 여성독립운동가 尹熙順(1860-1935)으로 의병장 독립운동가 柳弘錫의 며느리이며,⁸⁾ <눈물 뿌린 이별가>는 金羽模(1874-1965)로 독립운동가 權準羲의 며느리이다.⁹⁾

만주망명지 가사문학이 7편이나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각 문중이 만주로 망명할 때 여성들을 동반했기 때문이다. 우선 김대락은 1910년 12월 24일 66세의 노구로 안동 천전리를 떠났는데, 만삭 임신부인 손부와 손녀까지 긴 망명이었다. 김대락의 조카 萬植·濟植·祚植·洪植·政植·圭植 등이 백하의 망명을 도왔다. 종질(당질)인 和植·文植·寧植, 손자인 昌魯·正魯, 종손자인 文魯·成魯 등 천전리 김씨 문중에서는 1911년부터 13년까지 50명이 넘는 인원이 만주로의 망명길에 올랐는데¹⁰⁾, 대부분 여성을 동반했다. <위모사>의 작가 이호성도 김대락의 종질인 남편 金文植을 따라 동반 망명한 것이다. 이상룡도 부인 김우락은 물론 아들 李潛衡 내외와 손자 李炳華 등과 함께 전가족이 동반 망명했다. 일경의 감시를 피해 1911년 1월 5일 먼저 떠나, 1월 25일에 떠난 부인, 아들 내외, 손자 등과 압록강 가에서 만나 국경을 넘었다¹¹⁾. 황만영도 김대락·

<조순별서>는 1913년 말에서 1914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7) 독립운동가 黃萬英의 영향을 받은 남편과 함께 1911년 봄에 고향을 떠나 서간도 회인현, 통화현을 거쳐 유화현에 살던 1916년 경에 <원별가>를 지었다(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 연구』, 앞의 논문, 154-157쪽).

8) 남편 유계원도 독립운동가이다. 1911년 4월 신변현에 도착하고 1912년 초에는 환인현 팔리진자진 취리두 남산을 근거지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1913년 시아버지 유흥석이, 1915년에는 남편 유계원이 세상을 떠나버려 1915년 아들 유돈상, 유교상을 데리고 환인현을 떠나 무순 포가둔으로 이주했다. 무순 포가둔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던 1923년에 <신식터럼>을 지었다(김양, 『중국에서 항일독립투쟁』, 『윤희순의사항일독립투쟁사』, 의암학회 편, 2005, 97-147쪽).

9) <北遷歌>의 작가인 金鎭衡(1801-1865)의 손녀이기도 하다. 1940년에 먼저 간 아들 權五憲(1905-1950)이 있는 유화현 삼원포를 향해 안동 가일마을을 떠나면서 <눈물 뿌린 이별가>를 창작했다(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앞의 논문, 133-158쪽).

10) 조동걸, 『전통 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시혜 - 안동 천전 문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3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373-415쪽.

이상룡 문중과 거의 동시에 출발해 이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만주에 도착했다. 黃濩·黃萬英·黃道英 일가 전체가 이주함은 물론, 이후 고향 주민 100여 세대가 망명했다. 이때 황씨 문중이었던 <원별가라>의 작가는 시부모 및 남편과 함께 전가족이 망명했다. 유홍석은 아들 유제원과 함께 먼저 중국으로 떠났다. 그후 계종계 유인석이 유씨네 대·소가족, 처갓집, 친척, 부하, 문인, 제자, 친구들 모두 40~50가구를 이끌고 1911년 4월에 중국 요녕성 신빈현 고려구에 도착했다. 이때 <신식트령>의 작가 윤희순도 아들 돈상, 민상, 교상 등을 데리고 들어갔다. 앞선 문중이 경술국치 직후 망명한 것과 달리 <눈물 뿌린 이별가>의 작가 김우모는 1940년에 망명했다. 이미 친정 조카 金施煥이 1912년에, 둘째 오빠 金元植이 3·1운동 이후에 만주로 망명해 있었다¹¹⁾. 둘째아들 權五憲이 1935·6년 경 만주로 망명한 지 1년 후에 만아들 權五潤의 가족이 망명했으며, 그 후 1940년에 김우모 부부가 자식들이 있는 만주로 들어갔다. 이상 만주망명가사 7편의 개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권 <西後錄>, 경인문화사, 2008, 11~55쪽.
 12) “字繼緒生乙丑辛庚辰墓未詳己未年以後救國運動次渡滿未還國” 『義城金氏大同譜』 卷之三 136쪽.

성별	작품명	창작년대	작가	나이	문중
남	<분동가>	1913년	김대락	68	안동 내알김씨 김대락 문중
여	<위모사>	1912년	이호성	22	안동 내알김씨 김대락 문중
	<조손별서>	1913~4년	김우락	60세경	안동 진성이씨 이상룡 문중
	<간운스>	1914년	김우락	60	안동 진성이씨 이상룡 문중
	<원별가라>	1916년	평해황씨 머느리	20대	울진 평해황씨 황만영 문중
	<신식트령>	1923년	윤희순	63	춘천 고흥유씨 유홍석 문중
	<눈물뿌린 이별가>	1940년	김우모	67	안동 안동권씨 권준희 문중

2.2. 혁신유림의 개념과 만주망명

19세기 말과 1910년 한일합방을 거치는 동안 외세, 특히 일본에 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정척사의 기치 아래 의병을 조직하여 국내외에서 무력으로 일제에 항쟁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병운동, 당국의 원인이 백성들의 미개에 있음을 자각하여 철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려는 독립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독립운동 등의 상당 부분은 전통적인 유학교육을 받은 유림들이 담당했다. 이와 같이 정통유림이면서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서고 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유림들을 ‘혁신유림’이라고 한다. 조동걸은 ‘혁신유림’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전통적 척사유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둘째 사상의 一變으로 위정척사의 성리학적 민족주의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민족주의의 사상 정립을 모색하고, 셋째 아울러 전수해온 봉건주의나 復辟主義를 극복한 근대국가 이념을 가지면서도, 넷째 유가의 생활이념을 고수했던 유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유림은 유교 천년의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나타낸 자

아 혁신의 시도이며, 또 일제하의 한국사에서 보여준 근대지향의 형상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따라서 혁신이라고 해도 유교를 전적으로 배격한 개화 인사와는 다르다. 이들은 대개 을미의병(1895-1986) 때만해도 칙사유림이었는데, 의병운동과 아관파천(1896)을 겪으면서 왕권의 무력성에 대한 인식, 또 독립협회의 개혁운동과 광무농민운동 등에 의한 신면목 즉, 몇가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혁신적 사고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그전의 동도서기론과도 역사적 성격이 같을 수 없다. 동도서기론은 개항 개화에 대한 인식이고, 또 동도에는 봉건주의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 유림과는 발생사적 계기나 사상의 성격이 다른 것이다.¹³⁾

위의 설명에 의하면 혁신유림은 존화사상에 근거해 의병을 조직하여 항쟁하던 칙사유림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칙사에 대신하여 개화를, 존화에 대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쪽으로 전화를 나간다. 그리하여 혁신유림은 유가의 생활 이념을 고수하면서도 자주적 민족주의 사상과 근대국가 이념을 지닌 혁신적 사고를 지닌 유림이다. 당시 급변하는 역사 상황에 맞추어 정통유림이 칙사유림으로, 다시 칙사유림이 개신유림으로, 그리고 개신유림이 혁신유림으로 전화한 단계를 거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혁신유림은 유교를 전적으로 배격한 개화 인사와 구별된다. 그리고 개화와 독립을 주장하는 한편, 입헌군주정이나 근대국가의 왕이 가지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인정하여, 아직도 근황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동도서기론적 개신유림과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런데 당대의 역사적 삶을 살아간 각 개인의 성격을 학계에서의 정의나 구분에 따라 정확히 구분지어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에 따라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 단계를 뛰어 넘을 수도 있고, 여러 단계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혁신유림이라는 용어는 학계의 엄격한 정의와 구분에서 벗어나 범박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혁신유림의 개념에는 1894년부터 시작된 의병활동

13)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사연구』 제42집, 한국사연구회, 1983, 124~125쪽.

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거나 애국계몽운동에 헌신하다가,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반드시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들어간다. 1910년 한일합방과 동시에 국제정세와 항일의 실제적 방법론이 변경됨으로써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하는 방향의 인생행로를 택한 유림을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유림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태어나 성장한 정통유림이면서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의병운동이나 애국계몽운동을 거쳐 1910년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에서 근대로의 혁신을 꾀한 유림을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혁신유림의 개념에 의하면 앞서 작품 개관에서 살펴본 金大洛(1854-1914), 李相龍(1858-1932), 黃萬英(1875-1939), 柳弘錫(1841-1913), 權準羲(1849-1936) 등은 모두 정통유림에서 독립운동가로 전화한 혁신유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독립운동가로 추서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구체적 활동을 장황히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논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다만 혁신유림으로서의 면모를 개괄적으로나마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은 안동 내알마을(김대락), 안동 임청각(이상룡), 평해 사동촌(황만영), 춘천 함골(유홍석), 안동 가일마을(권준희)에 오랫동안 세거하며 정통유학을 수학하고 몸소 실천한 정통유림이었다.

그러던 이들은 일제 강점이 노골화되는 근대 초기에 항일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우선 김대락, 이상룡, 황만영은 직·간접으로 의병에 관여하다가 학교 설립(김대락과 이상룡은 안동 협동학교, 황만영은 평해 대흥학교)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에 뛰어들었으며, 국권 상실 후에는 거의 동시에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만주망명 당시 김대락, 이상룡, 황만영 문중은 혼맥으로 서로 얽혀 있어 가족과 다름 없었다. 이상룡의 아내는 김대락의 여동생이어서 김대락에게 이상룡은 매부였다. 그리고 "이상룡의 조카 李文衡은 김대락에게 從孫婿였다. 또 일행 가운데 黃萬英 · 黃道英 · 黃義美 중형제는 김대락의 孫婿인 종손 황병일의 숙부들이며,

손자 金正魯는 곧 황만영의 사위가 되었으니 겹겹이 혼인으로 연결되는 관계였다.”¹⁴⁾ 신민회의 국의 독립군 기지 창건 사업에 동조한 황만영이 1910년 11월에 안동의 이상룡을 방문해 그의 동조를 얻어내고 이어 김대락도 동참하게 된 것이다.¹⁵⁾

유홍석은 1895년부터 의병에 투신하여 춘천의병장으로 활약하다 경술국치 직후 만주로 건너갔다. 그런데 유홍석은 만주에서 활동한 그의 항일단체 명칭을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병’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홍석과 함께 활동했던 조선13도의병대장 柳麟錫은 만주로 건너가서도 신학교 교육, 공화제, 입헌군주제 등을 반대하는 척사유림의 입장에서 동도서기론적 개신유림의 입장을 취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¹⁶⁾ 유홍석이 유인석과 얼마나 사상적으로 다른지, 1913년 사망하기 이전까지 사상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그의 며느리 윤희순이 1912년 환인현 취리두로 옮겨 가서 신민회 간부들이 건립한 동창학교의 분교 ‘노학당’을 건립하고 항일인재를 양성했던 것¹⁷⁾으로 보아 그의 사상도 혁신유림의 사상적 변화 경로와 유사하게 변화를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홍석도 정통유림에서 의병장을 거쳐 만주로 건너가 독립투쟁을 선도했던 혁신유림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권준희가 살았던 안동 가일마을은 3·1운동 이후 사회주의 운동가 權五尙의 귀향으로 사회주의 운동의 본산지가 되었다. 거의 모든 가일권씨 일족들이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동 가일마을을 ‘안동의 모스크바’라 부른다. 권준희의 손자 權五尙과 權五雲이 사회주의운동가들이 주도한 6·10 만세운동에서 체포되어 고문후유증으로 모두 죽었을 정도로 권준희를 포함한 가일권문은 사회주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14) 강윤정, 앞의 논문, 30~31쪽.
 15)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국인의 형성-석주 이상룡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03쪽.
 16) 손승철, 「의병장 유인석 사상의 역사적 의미」, 『강원의병운동사』, 강원의회연구회 편, 강원대학교출판부, 1987, 242~244쪽.
 17) 김양, 앞의 논문, 108~125쪽.

지원했다. 따라서 권준희는 정통유림에서 독립투쟁에 가담하고 가장 혁신적인 사회주의 사상까지 수용한 혁신유림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권준희는 국내에서 광복단에 협력한 독립운동가로 만주로 건너가지는 않았다. 대신 사회주의 사상을 흡수한 마을 청장년층이 일제강점 중반기부터 만주나 모스크바로 가게 되는데, 일제강점 말기에 권준희의 아들인 權東萬(김우모의 남편) 내외와 손자 권오현·권오윤 형제도 독립투쟁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게 된 것이다.

3. 혁신유림의 사상적 기반

김대락, 이상룡, 황만영, 권준희 등의 영남 혁신유림은 그 학문적 뿌리가 定齋 柳致明의 定齋學派에, 그리고 유홍석은 그 학문적 뿌리가 華西李恒老의 華西學派에 있다. 전자는 退溪學을, 후자는 尤菴學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학파라는 정체성을 지닌다. 두 학파에 소속되어 학문을 했던 이들 혁신유림의 철학사상은 각기 다른 양상을 지닌다. 당연히 이들 혁신유림의 철학사상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민족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한 그들의 항일투쟁·독립운동 정신이 어디에 기반하는가 하는 점과 여성의 동반방향이 어떠한 사상에 기반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3.1. 유학적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19세기 말 위정척사의 움직임은 몇몇 대표적인 성리학자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유학계 전반의 시대과약이었고 현실대응이었다. 영남만민소사건, 의병운동 등 위정척사 의식은 거국적인 유학계의 의지였다.¹⁹⁾ 이렇게

18)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항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앞의 논문, 135~137쪽.
 19) 윤사순, 『한국유학사상사론』, 열음사, 211~212쪽.

유학에 의한 국권수호의 의지가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펼쳐졌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조유학사는 19세기 즉 왕조 말기에 이르러 크게 주목할 현상을 보인다. 그것은 당시 각계 학파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主理想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퇴계 학통을 이어 전통적으로 主理論을 주장해 온 정계학파는 물론 화서학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파의 계보를 달리한 여러 학자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주리론으로 일치된 경향을 띠고 등장한 것이다. 주리론의 일치된 등장 이유는 서세 동결에 따라 우리 전통에 대한 위기의식과 서양문명과의 대결에 대비할 자체 이론의 새로운 정립 과정에서 전통사상으로서의 性理學의 정통성과 근본 원리에 대한 재확인 및 그것의 고수라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⁰⁾

보통 형이상학적 주리설은 ‘공리공론’의 색채가 짙은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주리설이 왜 강렬한 현실지향의 ‘국권수호’로 나간 것일까? ‘理’는 모든 원리원칙을 가리키는 반면, ‘氣’는 모든 현상과 존재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氣는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가치 중립의 성질을 가진 것이지만, 理는 ‘善의 原理’ 혹은 ‘善으로서의 義理’라는 의미를 가져 理 자체가 선하다고 믿게 된다. 그러므로 氣에 치중하는 主氣의 사고보다 理에 치중하는 主理의 사고가 더 가치 의식이 높게 된다. 그리하여 所當然으로서의 善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기에는 요청적 善을 강조 역설하기 위해 善으로서의 理를 氣에 상대하여 중요시하는 현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退溪가 ‘氣만 있고 理의 乘(理之乘)이 없으면, 이욕에 빠져 금수로 된다’고 한 것, 華西가 ‘理가 주가 되고 氣가 役이 되면, 理는 순수하고 氣가 바로 되어 만사가 다스러지고 천하가 편안해진다. 그러나 氣가 주가 되고 理가 貳로 되면, 氣는 강하여지고 理가 숨어 만사가 혼란해지고 천하가 위태롭게 된다’고 한 것은 모두 理를 善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主理에 철저히하려는 의식은 그만큼 철저히 악을 피하고 선을 위하여는 의지와 상통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바로

20)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307~308쪽.

50 古詩歌研究 第27輯

이 점에 실천성, 즉 행위지향의 실제적 성격이 자리하게 된다. 19세기 말 국가 위기에 처하여 주리파의 현실관 및 실천관은 국권수호의 자주적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

이와 같이 주리론에서 善을 추구하는 실천성은 이기적 욕구의 충족보다는 殺身成仁의 ‘명분적 가치’에 치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정통유림의 실천성은 위정척사로 출발해 모두 의병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이들의 사상도 이에 맞추어 변화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은 개화근대사상, 사회진화론, 국민적 민족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근대개몽주의²²⁾를 흡수했다. 유학의 정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신서적을 읽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며 진보적인 활동을 해나갔으며, 노비문서를 모두 불살라 노비를 해방하고 단발을 했다. 김대락과 이상룡은 협동학교를, 그리고 황만영은 대흥학교를 개설하여 신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더 이상 국내에서의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몇 백년 세거지를 떠나 국권회복을 위해 만주로 이주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서슴치 않고 결행했다. 한편 권준희 문중의 경우 사회주의사상을 섭취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나라의 위기에 직면해서 정통 유학이 가장 진보적인 학문과 사상으로 거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퇴계학통을 이은 안동지방의 유림은 조선시대 후반기에 남인의 정치 행로가 막힌 뒤 학문생활에 몰입하면서 “도통론적인 의식이 강하며, 그 연장선 상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원칙론적으로 대응하는 성향을 많이 드러낸다.”²³⁾ 정통 성리학의 적장자인 퇴계의 학문을 계승한다는 도통론적 의식은 이 지역 유림의 공동체 의식을 결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동의 유림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변화에 적극적이고

21) 윤사순, 앞의 책, 209~211쪽.

22) 조동걸, 『한말개몽주의의 구조와 독립운동상의 위치』, 『한국학논총』 제11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47~98쪽.

23) 박원재, 『후기 정계학파의 사상적 전회의 맥락』, 『대동문화연구』 제58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421쪽.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혁신유립으로 대거 전회했다. 전국적으로 안동지역에서 독립운동가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된 것은 퇴계의 학풍을 공동체 의식 안에 공유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역사 상황은 유림들로 하여금 외세에 대해 사상적으로 주리론에 경도되고 강한 실천성을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서 자신을 혁신하여 혁신유립으로 전회해나가게 했다. 이러한 혁신유립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점은 학문적 신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정신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추동력은 선비, 즉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있었다. 한말 나라의 위기상황은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사명을 촉발시켰다. 이때 혁신유립의 민족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감은 너무나 철저하고 과감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의병의 선봉에 나섰으며, 자기 휘하의 병사들을 위해 사재를 미련 없이 털어 양식에 충당했는데, 밀 빠진 독과 같이 엄청난 재산이 축났다. 그리고 집과 돈을 대어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자금을 댔다. 국치를 당해 만주로 건너가서는 독립운동 자금을 대기 위해 남아 있는 고국의 전답과 가옥을 팔아 처분했다. 독립단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기득권으로 얻은 지위와 재산을 포기한 일련의 행보는 지금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희생을 수반한 것이었다. 국가 위기에 처하여 자신들이 신봉했던 主理에 철저하고자 국권수호의 善 가치를 지향하고, 지식인인 선비가 먼저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다. 전통시대의 유학이 근대를 지향하며 보여준 숭고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3.2 공동체와 가족 지향 의식

만주 망명지에서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 가족과 함께였다. 조선총독부의 한 문서는 한국인은 '바늘 가는 곳에 실이 따른다'는 말처럼 만주의 여하한 산간벽지라도 하여도 남편은 반드시 처를 따르게 하고 처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가 일찍이 서로 떨어짐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인들이 거의

남자 단독으로 이동하여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수년이 되는 자가 적지 않은 현상과 대조된다고 기록했다. 서간도 지방에 대한 이주는 특히 한일 병합 시에 많았는데, 반드시 처자를 대동하고 갔다는 것이다. 만주망명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이동한 것은 반영주를 생각한 망명, 부인의 경제적 열악성과 의존성, 한국사회 가정의 결속도가 큰 점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²⁴⁾ 그런데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이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강하게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 만주망명의 주역이 혁신유립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상룡은 <家族團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단체는 한 남편, 한 아내에게서 시작되어 가족이 되고, 여러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여러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가족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옛날에 聖王이 법을 만드실 때는 '근본을 힘쓰는[務本]' 것을 요점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족에 뜻을 쏟으셨으니, 宗廟의 禮는 叢行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五服의 차례는 親疏를 구별하는 것이다. 조상의 유훈을 받들어 도타운과 화목함의 友誼를 강구하고 宗法을 세워 勸善懲惡의 政事를 행하니, 일이 있으면 합심하여 해결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협력하여 막아내었다. 대개 그 제도가 변질하고 정연하여 마치 국가·사회의 한 축소판과 같다. 후세로 내려오면서 부터 群治가 점차 해이해져 육신을 지닌 자는 단지 자신만 알고 다시 가족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恩愛가 단절되고 질서가 문란하게 만드니, 비유하자면 큰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썩거나 손상되었는데 가지와 잎이 어떻게 시들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이에 대해 개탄하였다. 그리하여 門内の 동지들과 더불어 家族團 하나를 조직하였는데, 미처 완료하지 못한 채 가족을 이끌고 서쪽으로 건너왔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6·7년이 지나게 되자 점차 고향에 대한 꿈이 뜸해지면서, 아마도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 호지부지 된 지 오래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庭會·鍾浩 諸君이 한 마음으로 일을 맡아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게 되자, 만 리 밖까지 편지를 보내 그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국가·사회가 가족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諸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거니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은 개인의 身心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禮記』에 이른바 "그 집

2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56~357쪽.

을 가지런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공은 어찌 서로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²⁵⁾

이상룡은 고향 안동에서 가내 동지들과 더불어 家族團 하나를 결성하려 했으나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만주로 망명해 오고 말았다. 만주에 있는 그에게 고향에서 가족단 결성의 취지서를 부탁하자 위와 같이 쓴 것이다. 단체는 一夫一婦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 가족이 사회를 이루고, 여러 사회가 국가를 이루는 것이므로 가족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된다고 했다. 가족단은 “友誼를 강구하고” “勸善懲惡의 政事를 행”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있으면 합심하여 해결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협력하여 막아”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단의 제도는 변질하고 정연하여 마치 국가·사회·의 한 축소판과 같다고 했다. 사회단체의 초석으로 가족 단위의 조직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다신 한번 “국가·사회가 가족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강조한 후 “가족은 개인의 身心에 기반을 둔다”고 하여 각 개인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취지서를 마무리했다. 위의 글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논리의 근거를 전통적 유교에서 찾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민권을 인정하고 공화제를 지지하고, 평등의 자유권에 의해 일부일처의 결혼도 상호 승인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등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혁신적 사고의 소유자였

25) 『국역 석주유고 상』, 앞의 책, 564쪽. “團體, 始於一夫一婦而爲家族, 合衆家族而爲社會, 合衆社會而爲國家, 然則家族, 爲國家社會之本, 不待言矣. 古者, 聖王設法, 以務本爲要, 故首注意於家族, 宗廟之禮, 所以重輩行也, 五服之次, 所以別親疎也, 奉祖訓而講敬睦之誼, 立宗法而行勸懲之政, 有事則合心以濟之, 遇難則協力以禦之, 蓋其制度, 周詳嚴然, 若國家社會之一縮影也, 降自後世, 群治漸解, 有身者, 只知其身, 而不復知有家族, 遂使恩愛斷絕, 秩序紊亂, 譬如大木, 其根朽傷, 柯葉安得不枯落也, 余嘗慨歎於是, 因與門內同志, 組織家族一團, 未及見成, 而挈家西渡, 獻身於國家社會, 六七年來, 鄉夢轉疎, 意其或主張無人, 廢擲虛耗久矣, 乃庭會, 諸諸君, 一心攬芳, 至有發展之望, 萬里寄書, 要余說明趣旨, 余惟國家社會之本於家族, 諸公業已知之, 余所欲言者, 乃家族, 本於箇人身心, 記所謂欲齊其家, 先修其身, 欲修其身, 先正其心, 是也, 諸公, 盍相與勉之哉.” 한문 원문은 『石洲遺稿』(이상룡,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178쪽)에서 인용.

다.²⁶⁾ 가족단의 제도도 “마치 국가·사회·의 한 축소판과 같다”고 하여 전통적인 것이 아닌 신식의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대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것을 쓰고 묵은 것은 버린다”²⁷⁾는 혁신적인 사고를 지녔지만, 국가 사회의 위기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조직으로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세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물며 지금 天下는 共理로 모든 사람이 임으로 和應하고 옛날에 물들여진 더러운 습속이 다 維新하여 平等의 권리는 천한 사람에까지 미치고, 自由의 종소리는 부인과 어린이에까지 미치고, 江淮에는 험난한 언덕이 없고 城關에는 울타리의 경계도 없으니(그 정도로 자유·평등해졌으니) 共同의 생활과 정치에 다시 더할 것이 없도다. (중략) 가정 안에는 한 가정의 共同이 있으며 마을에는 한 마을의 共同이 있다. 따라서 한 지방을 다스림에 지방의 共同이 있게 되고, 나아가 천하를 다스림에 천하의 共同이 있게 된다. 그레야 가령 길에서 갑자기 만나도 얼굴이 익숙한 정든 얼굴로 만나고 혹 우연히 橫逆을 만나면 갓끈을 메고 서로 구제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共和이고 共理이다. 敬과 義를 유지하면 信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 또한 이른바 共和의 근본이요, 이 또한 이른바 共理의 효험이다. 무릇 우리 동지들은 다 함께 힘쓰지 않겠는가?²⁸⁾

위는 1913년에 김대락이 작성한 <共理會 趣旨書>로 동포사회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공리회의 필요성을 역설한 글이다. 먼저 오늘날 사회는 옛날의 더러운 습속이 維新되었다고 했다. 평등의 권리가 천한 사람들에게

26) 서중석, 앞의 책, 266-272쪽.

27) “用其新去其陳”『石洲遺稿』 권 5 <自新樓趣旨書>(이상룡, 앞의 책, 209쪽). 이 글에서 이상룡은 “자신으로부터 새로워진 것은 새로워질 권한이 내게 있다(新自我者, 新之權在我)”고 하여 자주적인 자기 혁신을 강조했다.

28) 『共理會 趣旨書』 癸丑(1913) 6월 “況今天下共理, 萬口和應, 舊染汚俗, 咸與維新, 平等之權, 下逮賤養, 自由之鍾, 延及婦幼, 江淮無崖岸之阻, 城關無藩籬之限, 共同之治, 無復可如矣. (중략) 一家之內, 有一家之共同, 一閭之內, 有一閭之共同, 以之一方面而一方共同, 以之天下而天下共同, 假使猝遇道路, 情面如然, 苟或偶值橫逆, 纓冠而相救, 此乃所謂共和也共理也. 敬義夾持, 信在其中矣, 此又所謂共和之本也, 此又所謂共理之驗也, 凡我同志之士, 盍相與勉之哉?”(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제5집, 안동사학회, 2000, 219-227쪽).

까지 미치고, 자유의 종이 여성과 어린이에게까지 울리게 되었다고 하여 근대사회를 지향했다. 그리고 한 가정의 공동, 한 마을의 공동, 한 지방의 공동, 그리고 천하의 공동으로 넓혀나갈 것을 제안했다. 즉 공리란 무한하게 자유롭고 평등한 새사회를 유지하자면 모든 것을 공리·공동·공화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룡과 마찬가지로 근대사회를 지향하면서도 논리의 기초를 유학에서 말하는 대동·익에서 찾았다.²⁹⁾ 김대락은 당시 독립군 사회의 지도자로서 대동단결 의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단결의식을 강조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적으로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결성과 공리·공화를 추구했다. 공리·공화의 기본 단위로 김대락이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었다. 가정 없는 동포사회를 생각지 않은 것이고, 각 가정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동포사회의 대동단결을 위해 공리회를 결성하고자 한 것이다.

혁신유림은 근대문명, 자유와 평등론, 자주적 민족국가 및 공화제 등의 근대국가 이념을 수용하여 근대를 지향하는 혁신적 사고를 지녔다. 특히 혁신유림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자주독립을 위한 초석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동포사회의 공동체가 무엇보다 결실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근대사회에서 여성도 당연히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혁신유림이 만주망명 당시 여성을 동반한 것은 반영구적 이주 및 여성의 경제적 열악성에 대한 고려, 가족 동반의 전통적 관습 등만이 아닌 여성도 근대사회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이라는 적극적인 이유가 수반했기 때문이었다.

4. <분통가>의 작품세계를 통해본 혁신유림의 사상

<분통가>는 만주망명가사 중 유일한 혁신유림의 작품이다. 그는 『白下

29) 조동걸, 위의 논문, 178~179쪽.

日記』1912년 9월 27일자에 “국문으로 <분통가> 한 편을 지어 비분한 뜻을 나타내려 한다. 또한 부인과 여자들로 하여금 나의 곤란 중 겪었던 전후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대략 사가의 필법을 모방하여 적었으므로 이 또한 나의 본령이 있는 것이다.”³⁰⁾라고 창작 동기를 적고 있다. “부인과 여자들에게 읽히기 위함”이란 남성 작가가 가사 창작의 의도를 표현하던 전통적인 문구라서 가사 창작에 익숙했던 김대락의 관습적인 문구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곤란 중 겪었던 전후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과 연결해 볼 때 망명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부인과 여성들에게 알리고자 한 특수한 의도로 보인다. 김대락은 부인과 여성 모두, 심지어 만삭의 손녀까지 동반하고 12월 24일 엄동설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망명길에 올랐다. 만주까지의 도착 과정은 그야말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야 하는 여행이었고, 그 후 만주에서의 생활도 이전의 생활과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생활이었다. 자신의 결정 하나로 가족공동체인 부인과 여성들도 하루아침에 떠돌이 신세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진정한 뜻과 이유를 알려야 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대략 사가의 필법을 모방하여 적었다”는 것은 의지를 세워 투쟁하면 독립이라는 역사의 필연이 따를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통가>의 내용을 세분하면, ①서언(1-2구)³¹⁾ → ②성장과 포부(3-15구) → ③國亡의 현실과 망명 결심(16-44구) → ④출발 전 준비와 하직 인사(45-55구) → ⑤고향 출발과 육친 이별(56-67구) → ⑥시간도 도착 과정(68-86구) → ⑦망명지의 지세와 감회(87-95구) → ⑧한말 인사들의 심판과 항일열사 추모(96-105구) → ⑨역사상 충신의사(106-145구) → ⑩一死報國 의지의 고취(146-156구) → ⑪老將의 敵 섬멸 의지(157-176구) → ⑫독립 후의 세상(177-195구) → ⑬결어(196-200구)³²⁾

30) 『白下日記』1912년 9월 27. “以國文作憤痛歌一篇以瀉悲憤之意而使婦人女子亦知我前後困難中經歷畧做史家筆法此亦吾本領所在也”(조동걸, 위의 논문, 202쪽).

31) ①서언은 단 두 행으로 ‘無國之民’과 ‘離親去國’이 우습고도 분통하다고 했다. 그래서 작가는 서언에 나오는 ‘분통’이라는 말로 제목을 삼았다.

32) 4음보를 1구로 하여 총 200구의 비교적 장편에 속한다.

의 순으로 되어 있다. 망국의 현실을 개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망명 결심과 서간도 도착 과정, 충신열사의 회고·老將의 적 섬멸 의지 등을 통한 실천적 행동의 자기 다짐, 독립 후의 세상 기원·청년학도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한 독립 의지의 고취를 모두 포함한다.

<분통가>의 작가가 위와 같은 내용을 펼쳐나가면서 끊임없이 견지하고자 했던 것은 선비로서의 정체성이다. 작품의 서두에 해당하는 ②에서 자신의 성장과 포부를 말하는데, 선비로 태어나 성장하고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

憤痛한일 許多하나 다툼더욱 憤痛하다 / 二氣五行 聚精하사 父母님께 稟受할제 / 萬物中에 秀出하니 그안나 貴重한가 / 四民中에 선비되니 그안나 多幸한가 / 孝梯忠信 根抵삼고 仁義禮智 環樞³³⁾이라 / 禮義東方 옛답이서 靑龍³⁴⁾世業 구어보니 / 四書六經 기동삼아 詩賦表策 工夫모다 / 時來運到 도흔바람 事君之路 열예거던 / 史魚董狐³⁵⁾ 부슬비러 史局諫院 드러서서 / 北寺黃門³⁶⁾ 두다리고 小人놈을 버허니야 / 太祖大王 帶礪之盟³⁷⁾ 萬億年을 期約하고 / 太平聖主 만나거던 日月山龍 繡틀노코 / 世上이 板蕩커던 死於王事 하자던니³⁸⁾

33) 배박 : 울타리 혹은 기둥이라는 뜻이다.
 34) 청전 : 靑龍齋와 같다. 대대로 내려온 오래된 물건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대대로 내려왔다는 뜻이다.
 35) 사이동호 : 史魚(?-?)이다. 춘추 시대 衛나라 사람으로 史官을 지냈다. 孔子로부터 直臣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董狐(?-?)는 춘추 시대 晉나라의 직필하던 史官이다. 孔子는 옛날의 良史라 평했다. 董狐之筆이라 쓴다.
 36) 북사황문 : 北寺는 北司로 환관이 일 보는 관아 혹은 환관을 말한다. 黃門은 대궐의 문 혹은 환관의 별칭이다.
 37) 대리지맹 : 帶礪之誓와 같다. 黃河가 떠와 같이 줄이 오자 泰山이 솟듯과 같이 작게 되어도 국토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功臣의 집을 영구히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맹세이다.
 38) 白下日記本 <분통가>를 인용한다. 이 원텍스트를 김용직이 「분통가의 의미와 의식」(앞의 논문)에서 활자화했다. 그리고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8」(임기중 편저, 아세아문화사, 2005, 508-512쪽)에 수록된 것은 김용직의 활자본을 저본으로 했다. 원텍스트에서 김용직 텍스트로, 그리고 김용직 텍스트에서 임기중의 텍스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원텍스트인 백하일기본을 인용했다.

58 古詩歌研究 第27輯

위에서 작가는 '四民 중에 선비로 태어났으니 그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하면서 世業을 이어받아 '四書六經을 기동 삼아 詩賦表策을 공부'했다고 했다. 그리고 時運이 좋아 임금을 섬길 기회가 오면 직필 사관의 붓으로 소인배를 소탕하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선비로 태어나 다행이라는 진술은 선비의 신분적 혜택이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이 아니라 四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선비의 의무를 짊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것이다. 사민 중에 선택 받은 선비로 태어났으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지식인의 사명감이 당당하게 토로되었다.

그런 그에게 “경술년 칠월변고”는 평소 지니고 있었던 지식인의 사명을 행동화하는 계기가 된다. ③에서 ‘이천만 우리 민족이 젓 줄 놓은 아이와 같이 통곡하고 있다’는 진술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처럼 민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지식인의 사명감이 드러난다. 그리고 ‘忠孝義烈 네 글자를 새기어 놓고 교육하고 발달하여 예악문물을 보려 했다’는 진술, ‘칠십년 布衣寒士가 죽는 것도 分外事’라는 진술, ‘속절없이 생각하니 檀公上策³⁹⁾ 一走字’라는 진술 등에서 국망의 현실에서 선비가 이천만 민족을 위해 어떻게 행동화해야 했는지 그 의식의 변화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일제의 침략 야욕이 노골화되자 ‘忠孝義烈’을 명심하며 구국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제강점으로 나라가 망한 현실에서는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비록 칠십 가까운 노인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죽는 것도 분에 넘치는 일(分外事)이다. 조국 독립의 미래를 기약하며 투쟁을 위한 망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단군이 개국하고 고구려 태조가 창업한’ “長白山下 西間島”로 망명지를 결정한 것은 당시 만주로 망명해갔던 혁신유립 대부분의 견해였다.⁴⁰⁾ 주지하다시피 일제강

39) 檀公은 중국 남북조 시대 송나라의 장군 檀道濟(?-436)이다. 『資治通鑑』에 “檀公三十六計 走为上策”이라 하여 단군이 삼십육계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공상책 일주자”란 ‘단군이 삼십육계 중 상책으로 말한 도망가기’를 말한다.
 40) 이상룡도 <西後錄> 1911년 1월 조 기록에서 “만주는 우리 단군 성조의 옛터이며, 향도천은 고구려의 國內城에서 가까운 땅이었음에라? 요동은 또한 箕씨가 봉

점에 항의하여 자결을 택한 한말 지식인의 행동은 명분과 원칙에 투철한 유가적 행동으로 自端的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살아서 망명하는 길을 선택했다. 망명 직전의 심정적 상황을 표현한 “그터전에 사단말가”, “아침계역 더탄말가”, “그거등을 엮되보리” 등은 ‘일제와 마주 대하며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으로 문면 상으로만 보면 이 또한 자정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뒤에 드러난 김대락의 독립투쟁 의지를 볼 때 그의 망명은 단순한 개인적 修身, 즉 자정적 행동은 아니었다.

그의 망명일기인 『白下日記』에서 망명 과정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④~⑦의 서술은 매우 개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반한 가족에 대한 시선은 한 번도 드러나지 않으며, 고향에 두고 오는 이들에 대한 시선만이 이별 상황에서 잠깐 드러난다. 망명 일정이나 사건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망명 시 자신의 감회나 자세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처음 동구 밖을 나서며 쓴 ‘칼 끝 같이 마음 먹고 화살 같이 앞을 서서’라는 진술에서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비장한 마음을 피력했는데, 유약한 지식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추호도 자신의 행보에 의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6세의 늙은 유학자에게 재산을 팔아 가족들 모두를 이끌고 세계지를 떠나 만리타국으로 향하는 것은 결코 돈키호테 짓이 아니었다. 그저 선비된 도리로서 소신으로 믿고 살아왔던 충의열사의 당연한 길이었는 것이다. 항일열사와 역사상 구국 영웅을 나열하며 장황하게 술회하는 ⑧~⑩도 선비로서 충신열사의 길을 따르려는 작가의 정체성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一死報國의 의지를 고취하는 ⑩에서 ‘살아서도 죽은지라 그렇다고 참죽으랴’와 “太平基礎 因難이오 우뚝하세 우습이랴”는 유학에서 말하는 ‘殺身

해진 땅으로서 漢四郡과 二府의 역사가 분명하다.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비록 복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는 하나, 그 선조는 동일한 종족이었고, 같은 강의 남북에 서로 거주하면서 아무 장애 없이 지냈으니, 어찌 異域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라 하여 서간도가 우리 역사지임을 강조했다 (『국역 석주유고 하』, 앞의 책, 15쪽).

60 古詩歌研究 第27輯

成仁'에 다름 아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노령인 점을 의식하여 呂太公·方叔·廉將軍·范亞父·趙充國 등⁴¹⁾ 중국 역사상의 老將軍을 예로 들었다. 청년자제를 앞세운다면 전투에서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⑪). “~말가”가 연속되는 장면에서는 매 “~말가”마다 전투에서 日敵을 베는 김대락의 칼부림을 연상케 한다. 항일전투에 참가하려는 늙은 유학자의 실천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김대락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제가 패망한 후의 독립 세상을 펼쳐 보인다(⑫). “英美德德 上等國에 上賓으로 올나안자 / 六大洲와 五大洋에 號令하고 呑壓하니”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육대주와 오대양에 호령하고 제압하는 자주강국을 꿈꾸었다. “海晏河平 熙皞世에 堯舜世界 다시보니 / 憲法政治 共和政治 時措之義 사라가며 / 福을바다 子孫주고 德을짜가 百姓주고”에서는 헌법정치와 공화정치 등 근대국가 체제를 꿈꾸고 있음이 드러난다. 비록 “요순세계, 백성” 등과 같은 전통적 유학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 꾸 독립 후 세상은 봉건사회가 아니었고 세계 안의 자주독립국가로 당당하게 서는 근대 국가 체제였다.

이상으로 <분통가>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분통가>는 부인과 여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창작 의도에도 불구하고 인물 및 역사의 인용이나 한자 표현이 지나치게 현학적이어서 그 내용이 어렵고 표현도 매우 난삽하다고 할 수 있다. 유학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현학적 취향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학적 취향에도 불구하고 <분통가>

41) 呂太公은 呂公(?-기원전 203년)이다. 漢나라를 세운 劉邦의 관상을 보고 자기 딸을 그의 아내로 보냈다. 한나라 원년인 기원전 206년에 臨泗候에 봉해졌다. 方叔(?-?)은 西周 때 사람으로 宣王의 卿士를 지냈다. 왕명을 받아 兵車 3천량을 이끌고 북쪽으로 猘을 정벌하고 남쪽으로 猘를 정복해 공로를 세웠다. 廉將軍은 廉頗(?-?)이다. 전국시대 趙나라의 장군으로 노년의 나이도 불구하고 감옥을 입고 말에 올라 노의장을 과시했다. 范亞父는 范增(기원전 277-기원전 204년)이다. 초나라의 정치가로 項羽에게 亞父라는 존칭을 받았다. 趙充國(기원전 137-기원전 52년)은 漢나라 武帝 때 장군이다. 흉노와 싸우지 않고 金城 일대에서 둔전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방략을 제시했다.

는 민족의 현실을 개탄하고 자신과 청년학도들의 독립투쟁 의지를 고취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 주제 안에서 내용을 펼쳐 나가면서 김대락이 꾸준히 견지했던 것은 충신의사로서의 길을 택한 선비로서의 정체성이었다. 선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구지만 충신의사의 길을 당연히 택해야 한다는 지식인으로서의 신념과 실천적 행동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가 꿈꾼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국가로 근대국가 체제를 지닌 것이었다. 이와 같이 <분통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지식인의 사명감에 불타는 작가의 내면의식을 읽을 수 있다. 민족에 대한 지식인의 사명감으로 분통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장함, 독립에의 희망감 등이 표현된 이 가사에서 혁신유립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

5. 맺음말 : 가사문학사적 의의

6편이나 되는 만주망명가사의 대부분이 여성의 작품이고, 정작 혁신유립 당사자의 작품은 <분통가> 한 편 뿐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혁신유립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은 만주망명가사의 산출 배경에서 혁신유립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전통시대 유립은 자기 혁신을 통해 혁신유립으로 전화하여 근대를 지향한 숭고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발휘했다. 그리고 유교사회의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을 근대사회의 초석으로 삼고자 했으며, 만주망명시에도 근대사회의 당연한 동참자로서 여성을 동반해왔다.

20세기 초는 엄격하게 말하면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의 풍경은 극단적으로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극단적으로 근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폭으로 펼쳐져 있다. 그 가운데 혁신유립은 진정한 근대화 과정과 현대사회로의 진입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

인 집단이다. 이러한 혁신유립의 성격은 만주망명가사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만주망명가사는 가사라는 전통 장르로 여성의 자기 서사양식과 같은 매우 관습적인 서술 양식을 지닌 채 표현했지만 그 안에는 만주로의 근대적 여행 경험, 만주에서의 근대 생활, 근대적 사고 등이 수용되어 있다. 전통이 근대에 대응한 제양상을 만주망명가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이 근대에 대응한 가사문학적 제양상이 혁신유립의 존재에 의해 드러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혁신유립의 가사문학사적 의의는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만주망명가사가 창작될 수 있었던 것은 혁신유립 문중이 전통적으로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혁신유립 문중은 전통적으로 남성은 한문학을, 여성은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안동의 경우 전통적인 규방가사의 강세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도 가사의 창작 전통이 활발하게 지속되었다. 특히 안동 지역에서도 내앞김씨 김대락 문중은 가사문학 창작이 매우 활발했는데, 이 시기에 창작된 가사가 확인된 것만도 상당하다. 우선 김대락 본인의 <憤痛歌>가 있고, 김대락의 첫째 여동생 김우락이 만주망명가사 <간운수>와 <조손별서>를 지었는데, 그 외 <경제서>가 더 있다. 김대락의 막내 여동생 金洛⁴²⁾의 <遊山日錄>이 있으며, 김대락의 조카 金祚植의 <開詔金氏世德歌>가 있다. 가일마을 안동권씨 문중에서는 김우모의 <눈물 뿌려 이별사>가 있고, 그의 아들 권오현의 <꽃노래>가 있다. 권오현은 일본유학생 출신으로 사회주의 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유립 가문에서 성장하여 여성의 가사 창작에 익숙했고, 모친과 문중 여성들을 위해 <꽃노래>를 창작했다. 그리고 혁신유립은 한말 의병활동에 참여한 층으로서 의병가사의 담당층이기도 하여 춘천의 고흥유씨 문중인 유홍석은 <告

42) 金洛 또한 독립운동가이다. 독립운동가 李中業의 아내로 경술국치 직후 순절한 嚮山 李晚齋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남편 및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전선에 직접 뛰어들이었는데,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유공 포상을 받은 몇 안되는 인물이다. 1919년 3월 안동지역에서 일어난 3·1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일제경찰에 끌려가 모친과 문중 당해 두 눈을 모두 잃고 11년 동안 고초를 겪다가 1929년 2월에 사망했다.

兵丁歌辭》를 지었고, 그의 며느리인 윤희순이 만주에서 <신식투령>을 지은 것이다. 만주망명가사 7편 가운데 안동의 문중에서 5편이, 그리고 울진과 춘천의 문중에서 각각 1편씩 창작되어 가사 창작의 근거지가 안동임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가사문학을 창작하고 향유하던 혁신유립 문중의 여성들은 만주망명지에 가서도 평생 익숙하던 가사 장르를 그들의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 만주에서 창작된 디아스포라 시가문학은 창가, 개사민요 등의 향일가요나 현대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혁신유립 문중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서정을 표현할 때 오래 그래왔던 것처럼 전통적 장르인 가사를 통해서 했다. <간운수>에서 작가가 며느리와 함께 가사를 짓고 향유하는 일상을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유립 문중의 여성들은 가사 창작을 통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간직했던 것이다.⁴³⁾ 창가, 민요, 한시, 현대시, 가사 등 다양한 장르로 펼쳐진 만주 디아스포라 시가문학 가운데 혁신유립의 한시와 함께 혁신유립 문중 여성의 만주망명가사는 전통장르를 온전히 계승한 시가문학이라는 데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43)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수> 연구」, 앞의 논문, 124~125쪽.

참고문헌

- 강윤정, 『백하 김대락의 민족운동과 그 성격』, 『백하 김대락 선생-추모 학술강연회』, 안동향교-안동청년유도회, 2008, 27~42쪽.
- 고순희, 「윤희순의 의병가와 가사 - 여성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창간호,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241~270쪽.
-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원별가라> 연구」, 『국어국문학』 제151호, 국어국문학회, 2009, 151~176쪽.
- 고순희, 「만주 망명 여성의 가사 <위모사>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29~56쪽.
- 고순희, 「만주망명 가사 <간운수>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37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107~134쪽.
- 고순희, 「일제강점기 가일마을 안동권씨 가문의 가사 창작-향일가사 <꽃노래>와 만주망명가사 <눈물 뿌린 이별가>」, 『국어국문학』 제155호, 국어국문학회, 2010, 133~158쪽.
- 권영철, 『규방가사 - 신변탄식류』, 효성여대출판부, 1985, 568쪽.
- 김 양, 「중국에서 항일독립투쟁」, 『윤희순의사항일독립투쟁사』, 의암학회 편, 2005, 97~147쪽.
- 김용직, 「분통가·분통가의 의미와 의식」, 『한국학보』 제5권 2호, 일지사, 1979, 204~225쪽.
- 류연석, 『한국가사문학사』, 국학자료원, 1994, 371면, 373~374면, 412~413쪽.
- 박영석, 「일제하 제만한인사회의 형성-석주 이상룡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03쪽.
- 박요순, 「근대문학기의 여류가사」, 『한국시가의 신조명』, 탐구당, 1994, 301~306쪽.

- 박원재, 「후기 정재학과의 사상적 전회의 맥락」, 『대동문화연구』 제58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7, 421쪽.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85~86쪽.
- 백순철, 「규방가사와 근대성 문제」, 『한국고전연구』 제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 39~68쪽.
- 서증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66~272쪽, 356~357쪽.
- 손승철, 「의병장 유인석 사상의 역사적 의미」, 『강원의병운동사』, 강원 의병운동사연구회 편, 강원대학교출판부, 1987, 242~244쪽.
- 안동독립운동관 편, 『국역 석주유고 상』, 경인문화사, 2008, 564쪽.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석주유고 하』 <西徒錄>, 경인문화사, 2008, 11~55쪽.
- 윤사순, 『한국유학사상사론』, 열음사, 211~212쪽. 209~211쪽.
- 『義城金氏大同譜』 卷之三, 136쪽.
- 이동영, 「개화기 가사의 일고찰」, 『가사문학논고』, 부산대학교출판부, 1987, 123~169쪽.
- 이상룡, 『石洲遺稿』,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178쪽, 209쪽.
- 이우성, 『한국의 역사상』, 창작과비평사, 1982, 307~308쪽.
- 이재수, 『내방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76, 28쪽.
- 임기중 편저,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8』, 아세아문화사, 2005, 508~512쪽.
-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사연구』 제42집, 한국사연구회, 1983, 124~125쪽.
- 조동걸, 「한말계몽주의의 구조와 독립운동상의 위치」, 『한국학논총』 제11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47~98쪽.
- 조동걸, 「전통 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천천 문중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36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원, 2000, 373~415쪽.

조동걸, 「백하 김대략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제5집, 안동사학회, 2000, 219~227쪽. 202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권, 지식산업사, 1986, 108~109쪽.

투고일 : 2011년 1월 7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Abstract>

**Research on Poetry Literature at Manchuria Exi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 Centering on the Class in charge-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Ko Soon-Hee

Manchuria exile poetry consists of 7 pieces in total. The only male work "Buntongga" was created by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innovative Confucian scholar-Kim, Dae-rak. And the rest 6 pieces of the poetry were created by the females from the innovative Confucian families. Therefore, it's essential to have a discussion about the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lass in charge of the Manchuria exile poetry and the foundation of its production. Thus, this thesis is on the study into background of Manchuria exile poetry, aiming at discussing the concept of the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philosophical idea of the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analysis of the work <Buntongga> written by one of the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First, In Chapter 2, this thesis took a look at the overview of the work and concept of the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In Chapter 2.1, this thesis arranged the overviews of the 7 pieces of Manchuria exile poetry. In Chapter 2.2, this thesis investigated and revealed the fact that the writers of Manchuria exile poetry were the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and women from their families.

In Chapter 3, this thesis took a look at the ideological basis of

68 古詩歌研究 第27輯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In Chapter 3.1, this thesis had a discussion on their ideological basis from the aspect of 'Confucian Noblesse Oblige idea', and from the aspect of 'Community and family-oriented consciousness' in Chapter 3.2, with a focus on what grounds their consciousness of independence movement, which induced them even including women to be involved in the actual ground of struggle at the sacrifice of everything, was based on.

In Chapter 4, this thesis made an analysis of the world of the work, <Buntongga>, the only one written by an innovative Confucian scholar. As a result, this thesis could perceive the concrete aspects of Confucian Noblesse Oblige idea be realized in the work.

Lastly, in Chapter 5, this thesis inquired into the significance as poetry literature. This research had a discussion with a focus on what meanings it assumes that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and women from their families created Manchuria exile poetry.

Key Words : Key Words: Manchuria Exile Poetry, Innovative Confucian Scholars, Kim Dae-rak, Lee Sang-ryong, Hwang Man-yong, Yu Hong-seok, Kwon Jun-hee, Yoon Hee-sun, Lee Ho-seong, Kim Wu-rak, Kim Wu-mo, Noblesse Oblige, Buntongga.